◇중심회 회원인 매탄 삼성클리닉 및 삼성한의원 의료진들이 수원포교당 노신도들을 무료 검진하고 물리치료를 해주고 있다.

바라밀현장

1080명 의료보시하는 '중심회'

"조계종 2교구 스님 건강 우리가 책임져요"

사회 그늘진 곳 의료봉사로 선행
종교·직업떠나 스스로 활동 참여

"조계종 제2교구 소속 스님들의 건강은 우리가 책임질 겁니다."

이런 큰 원력을 세우고도 드러내지 않고 스님과 노인들에게 무료 검진 및 치료를 맡아온 신행단체가 있다. 수원과 인근지역 재가자 신행모임인 중심회(中心會, 회장 이 황)가 그 주인공. 창립 30주년 기념으로 '1080명 무료검진 및 치료' 활동을 올 1년 동안 회향한다는 원력으로 모두 11번의 순회 검진 및 치료를 해오고 있었다.

이들의 선행은 지난 달 10일 수원포교당에서 매탄삼성클리닉 김흥준 원장 및 매탄삼성한의원 곽동우 원장 등 의료진 10명이 투입돼 65세 이상의 노신도를 대상으로 무료검진과 치료봉사를 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 진행된 이날 진료는 혈압측정부터 시작해 △자동8강진단 분석(한방의 종합검진) △요검사(10종) △혈당검사 △생혈액 검사 △초음파 검사와 함께 투약 및 물리치료 등으로 이어지는 종합병원 수준의 검진이었다. 행사장에는 이황 회장과 회원인 유원근 회원, 박상수(매탄삼성크리닉 이사장) 회원 등도 동참해 물리치료를 받는 어르신들을 거들었다.

"아이, 시원해. 고마워요."

"뭘요,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이날 수원포교당에서 검진과 치료를 받은 인원은 75명, 이제까지 스님 300여명을 비롯 1040명에게 의료보시를 했다. 그동안 중심회는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를 비롯해 봉녕사 승가대학 학인스님과 수원 정혜사, 용인 화운사 그리고 광주 나눔의집 등을 순회하며 행사를 펼쳤다. 또, 10월 21일~30일 매탄삼성크리닉에서 불자들에게 생화학 검사(20종)와 혈액학 검사(18종)를 실시했다.

7달간의 무료진료 행사 후원으로 1억여원 이상의 손실을 보면서도 정성을 다하고 있는 박상수 회원은 "스님을 비롯 노인층이 주 대상이었는데 영양실조, 관절염, 신장질환이 많고 비구니 스님 등 여성의 경우 근육무기력증과 부인과 질환도 많았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밝혔다.

중심회가 의료봉사를 하게 된 동기는 특별하다. 1971년 중심회가 태동할 당시부터 용주사 선방의 입승으로 오랫동안 존경을 받던 스님이 지난해 겨울 '무연고자'로 쓸쓸히 병원에서 숨진 장면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이때 충격을 받은 중심회는 새로이 결사를 했다. "조계종 제2교구 소속 스님들이나마 건강검진과 치료를 책임지고 해보자"는 발원으로 한 해를 의미있게 회향하고 있는 것이다.

중심회는 1971년 용주사에 모인 대학생들이 당시 주지였던 정무 스님(안성 석남사 주지)을 모시고 결성, 후에 경찰대와 세무대 학생 등이 동참해 사회의 그늘진 곳을 찾아 다니며 선행하는 신행단체로 거듭났다. '어느곳에서 무엇을 하든, 중심(中道)을 잘 지키라'는 정무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대학교수, 의사, 법조인, 사업가 등 150여명 회원들이 각자의 업에 충실하며 안성 석남사에서 매월 첫 번째 일요일 정기법회도 열고 있다. (02)575-9135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중심회' 이황 회장

노후건강 책임질 체계 확립 절감
치료하는 병원 네트워크화 서원

"스님들을 검진한 결과 나이를 떠나 영양실조, 관절염, 근육무기력증 등 만성 질환이 많은데 놀랐습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아 '1080명 무료진료' 행사를 하고 있는 중심회 이황(51 · 일광무역 사장) 회장은 "스님들의 건강검진 결과가 생각보다 좋지 않아 놀랐다"며 "스님들의 노후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체계의 확립이 필요함을 절감했다"고 말한다.

직접 스님들과 노인들의 병고를 확인하고 보니, 일회성 행사로 그칠 수 없게 되었다는 이 회장은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행사를 지속하는 한편 스님들의 노후건강을 책임지는 병원을 주선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승가 노후 및 의료복지가 열악해 스님들을 무료나 실비로 검진 또는 치료할 수 있는 병원들이 필요해요. 이런 병원들이 광역시와 각 도마다 1개 이상 들어설 수 있도록 10여개의 병원을 네트워크화하는 것이 저의 서원이죠."

마음비추기

짧은 가르침, 긴 깨우침

풍부한 지식이나 논리정연한 말보다는 때로 어쩌다 들은 한마디의 말이 폐부 속에 스며들어 두고두고 남게 되는 수가 있다. 나도 남들이 하는 말을 많이 듣기도 하고 또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과거에 나누었던 짧은 대화는 어느 강의나 글보다도 진하게 마음 속에 남아있다.

지난날 지금은 너무나 널리 알려진 스님 한 분을 모시고 생활했던 때가 있었다. 스님은 무척 따뜻하고 자상하셔서 제자들을 깨우쳐주는 일에 소홀함이 없으셨다.

어느 봄날이었다. 꽃구경도 하고 바람도 쐴겸해서 스님을 모시고 몇몇 사람들과 함께 용인에 위치한 유원지를 가게 되었다. 이곳 저곳을 산책하다가 큰 호수 앞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데 스님은 일행을 향해 이런 질문을 하셨다.

"만약 너희들이 죽어서 부처님이건 하느님이건 염라대왕이건 누군가를 만났다고 가정했을 때, 그가 '그대는 인간세상에 있으면서 무엇을 보고왔는가 한 가지를 말해보라' 고 묻는다면 무어라고 답변할 거냐?"

우리는 저마다 이같은 스님의 질문에 한마디씩 답변을 드렸다. 그 답변에는 삶과 죽음을 보았다는 것도 있었고, 사랑과 미움을 보았다는 것도 있었다. 물론 나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런데 이런 일행들의 답변을 들으신 스님은 웃기만 하실뿐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

궁금해서 이번에는 내가 스님께, 스님이 하신 질문을 똑같이 여쭈었다. 이때 스님의 말씀은 "나? 나는 아무것도 본게 없다고 말하련다"였다.

뜻밖의 답변이었다.

옆에 있던 시자 스님이 "스님, 도를 보셨지 않나요?"라고 되묻자, 스님은 "아니 정말로 본 게 없어, 본놈도 없고 …"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셨을 뿐이다.

평생을 살다보면 본 것도 많고 들은 것도 많다. 마음 속에 기억하고 담아둔 양을 헤아려 본다면 수없이 많은 법인데, 스님은 그렇게 대답하신 것이다.

할 일도 많고 볼 것도 많은 세상에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며 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실체이기는 한 것일까. '무릇 형상있는 모든 것들은 진실상' 이 아니라고 하지만 색신이 있는 한 형상을 보지않고 살 수는 없는 일이고 보면, 본다는 것도 보지 않는다는 것도 비현실적이기는 매한가지가 아닌가.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보아야 제대로 보는 것일까?

항상 크고 작은 일을 겪으면서 언제나 떠올려지는 살아있는 법문이다.

寂然

신행 365일 이젠 실천이다

12월-회향의 달

· 회향은 실천의 완성
· 나에서 너, 너에서 우리로
· 아름다운 마무리
· 회향, 새로운 시작

나에서 너, 너에서 우리로

함께 구제받는 회향이 참 보시행
이익 버리고 대상 넓혀 베풀어야

자신의 공덕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회향'의 길은 곧 보살의 길이다. 모든 중생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때 비로소 보살은 깨달음을 얻는 것과 같이, 자신과 남이 함께 구제받는 회향이야말로 불자들이 지녀야할 참 보시바라밀인 것이다.

때문에 회향의 범위와 영역은 자신을 넘어서야 가능하다. 자신의 이익과 안위에 만족하지 않고 나에서 너, 너에서 우리로 그 대상을 넓혀 베풂을 실천하는 것이 회향의 또다른 의미이다.

"못생겨서 죄송하다" "일단 한번 보시라니까요"라는 유행어를 만들며 코미디계를 주름잡았던 故 이주일 씨(본명 정주일). 그의 62년 희극인 인생 가운데 가장 화려하고 감동적인 연기는 폐암 투병중의 금연운동으로 귀결되었다. 이 씨는 폐암 말기라는 비참한 현실을 딛고 250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담배를 끊게 만들었다.

한편으론 80년대 중반부터 20년 가까이 강원도 고성군과 제주도 서귀포시 보목 어촌마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왔고, 낙도 어린이 돕기 등 남모를 선행에도 앞장서 왔다. 그의 인생이 값질 수 있었던 것은 이같은 '아름다운 회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30년간 보따리 행상과 폐비닐 수집 등 궂은 일로 모은 12억원을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써달라"며 동국대에 기증했던 장내순 씨. 학생들에게 가진 재산을 모두 내어주고 세인의 감동과 부러움을 샀던 그가 지난 11월 25일 별세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진짜 부자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몸으로 실천했던 그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또다시 '아름다운 회향'을 떠올렸다.

지난 4월에는 자신의 신장에 이어 간까지 기증했던 한 불자의 삶이 화제가 됐었다. 실명을 밝히지 않은 채 '원명'이라는 법명만 드러냈던 그는 95년 신부전증을 앓고 있던 14세 학생에게 신장을 기증해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7년이 지난 올 4월 55세 간암환자에게 간까지 기증했다. 환자 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선물한 그의 보살행은 걸인에게 동전 한 닢 베푸는 일조차 꺼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임오년 12월도 중반으로 치닫고 있다. 사람들은 저마다 한 해를 되돌아보고 어떻게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것인가를 고민할 것이다. 이런 때 나와 내 가족에서 눈을 돌려 주위를 돌아본다면 더 따뜻한 겨울, 더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박봉영 기자

◇희극인 故 이주일 씨는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삶을 어떻게 회향해야 하는가를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지난 8월 봉은사에서 열린 故 이주일 씨의 영결식모습.

불교 문화관광 상품 개발 세미나 개최

(사)불교문화산업기획단은 불교가 지닌 전통문화적 가치를 종교성과 역사성을 바탕으로 연구하고 현대화해서 시대에 맞는 한국문화를 창출해 독창성있는 한국문화산업을 육성하며 이를 세계화하고자 설립됐습니다. (문화관광부 법인인가 제 377호)

본 기획단은 디자인 등 고부가 가치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21세기 디지털시대에 맞춰 전통문양등 각종 디자인을 자료화하고 한국문화상품의 대표적인 이미지인 불교 조형미의 산업적 응용의 현황 점검과 전망을 통해 새로운 세계적인 불교문화상품 개발에 기여하고자 세미나와 함께 불교 문화관광상품을 개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불교문화의 현대화 · 실용화의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알리는 문화상품으로서 그 자체로 문화포교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일 것이며, 국익에 지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부대중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사단법인 불교문화산업기획단 이사장 도후

세미나 일정

○ 일 시 : 2002. 12. 13 ~ 14(1박 2일) ○ 장 소 : 강화 전등사

○ 내 용

□ 1부 - 12월 13일(금요일) 오후 4:00 ~ 8:00

- 불교이미지의 산업적 응용의 현황과 전망 (이점원 / 동국대 미술과 교수)
- 불교로 본 한국인의 조형의식(윤범모 / 경원대 미술과 교수)
- 사찰건축의 관광자원화(김봉열 /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 불교이미지와 디자인 산업(박규현 / 대구대산업디자인과 강사)
- 전통불화의 산업적 응용(이기선 / 불교미술과 강사)

□ 2부 - 12월 14일(토요일) 오전 9:00 ~ 11:00

- 문화재 속에 나타난 불교문양 슬라이드 쇼(안장헌 / 사진작가)
- 한국 전통문양 CD롬 프리젠테이션(조원희 / 지도리 대표)

불교문양 사진집 간행 및 전통문양 CD롬 제작

○ 추진 일정 : 2003년 2월중 작업 완료